

정양레포츠평원은 인근 정양늾 생태공원과 더불어 해마다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자연 휴식처다.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변과 산책로 주변에 부유쓰레기와 토사, 유기물이 쌓이며 안전사고 우려와 경관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.

◇농어촌공사 합천지사, 집중호우 피해시설 복구 총력



[합천=뉴스시스]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집중호우 피해시설 복구 총력 (사진=합천지사 제공) 2025. 07. 28.
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(지사장 김동원)는 합천군 일대 기록적인 강우(698mm)로 피해를 입은 농업기반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시설 점검 및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.

이번 집중호우로 공사가 관리하는 농경지 293ha 침수, 양·배수장 6개소 침수, 용수로 약 20km가 파손 및 토사 매몰 등의 피해가 발생해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다.

합천지사는 최근 가회면 침수피해 농가를 찾아가 침수주택 내부로 밀려든 토사를 제거하고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정리하는 등 수해복구 활동을 실시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